

2016년 가을 학기  
전시간 훈련을 위한 메시지 개요

전체 주제:

교회들의 실패와 교회의 하락과  
교회 안의 이기는 이들과 교회의 회복과 교회의 단계들

메시지 14

교회의 단계들

(3)

두아디라 교회와 사데 교회

성경: 계 2:18—3:6

- I. 두아디라 교회는 하나의 표징으로서 로마 천주교를 예시하는데, 이것은 6세기 후반에 전 세계적인 교황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변절한 교회로 완전히 형성되었다 — 계 2:18.
- A. 아함의 이교도 아내였던 이세벨은 이 변절한 교회의 예표이다. 로마 천주교는 이 여자와 똑같이 되어, 많은 이교도의 실행들을 교회 안으로 가져왔다 — 왕상 16:31, 19:1-2, 21:23, 25-26, 왕하 9:7.
  - B. 마태복음 13 장, 요한계시록 2 장, 요한계시록 17 장에 나오는 세 여자는 같은 인물이다.
    - 1. 마태복음 13 장 33 절에서 한 여자가 (악하고 이단적이며 이교도적인 것들을 상징하는) 누룩을 가져다가 (하나님과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한 소제물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밀가루 서 말 속에 감추어 둔다.
    - 2. 이 여자는 요한계시록 17 장에 나오는 큰 창녀이다. 이 여자는 가증한 것들을 신성한 것들과 혼합시킨다. 요한계시록 2 장 20 절부터 23 절까지에서 동일한 여자가 이세벨이라고 불린다.
    - 3. 이 세 여자는 모두 로마 천주교를 가리킨다. 로마 천주교는 누룩을 고운 가루에 더한 여자이고, 짐승을 타고 있는 창녀이며, 기독교를 부패시킨 이세벨이다.
  - C. 요한계시록 2 장 20 절에서 주님은 변절한 교회가 여신언자로 자처하면서 주님의 노예들을 가르치고 미혹하는 것을 지적하신다.
    - 1. 변절한 교회는 자신이 하나님께 권위를 받아 하나님을 위하여 말하는 것처럼 가장한다. 변절한 교회는 하나님보다 자신의 말을 들으라고 사람들에게 요구한다 — 딤후 2:12
    - 2. 로마 천주교는 가르치는 여자이다. 변절한 교회는 자신에 속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보다는 오히려 자기의 말을 듣도록 가르친다. 천주교의 추종자들은 모두 천주교의 이단적이고 종교적인 가르침에 마취되어 있다.
  - D. 요한계시록 2 장 24 절에 따르면 변절한 교회는 ‘사탄의 깊은 것들’을 가르친다.
    - 1. 그리스도는 교회 안에 내주하시지만, 사탄은 사탄의 깊은 것들에 대한 가르침을 통해 간교한 방식으로 변절한 교회 안에 내주한다.
    - 2. 변절한 교회는 비밀들을 가르치지만, 그 비밀들은 하나님의 경륜에 관하여 신약에 계시된 비밀한 것들이 아니다 — 골 2:2, 엡 3:3-5, 9, 5:32.
    - 3. 사탄의 깊은 것들과는 대조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그분께서 예비하신 것들은 하나님의 깊이들, 곧 하나님의 깊은 것들이신 그리스도이다 — 고전 2:9-10.
      - a.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정해주시고 준비해 주신 깊고 감추어진 것들을 깨닫고 참여하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사랑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전 존재, 곧 영과 혼과 몸, 마음과 혼과 생각과 힘(막 12:30)이 전적으로 그분께 정해지는 것, 즉 우리의 전 존재가 그분께 점유되고 그분 안에 잠겨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시고 특별히 우리의 일상 생활 안에서 그분과 하나되는 것을 의미한다.

- b. 이런 식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가장 긴밀하고 친밀한 교통을 가지며 그분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의 마음 안에 있는 모든 비밀들을 이해하고(시 73:25, 25:14) 하나님의 이러한 깊고 감추어진 것들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게 된다.
- E. 두아디아에 있는 이기는 이들에 대한 주님의 약속들은 그들이 민족들에 대해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서 다스릴 것이라는 것과 그분께서 그들에게 새벽별을 주시리라는 것이다 — 계 2:26-28, 22:16, 마 25:21, 눅 19:17.
1. “야곱의 별”(민 24:17)과 주님의 출생 때에 나타난 별(마 2:7, 9-10)은 요한계시록 2장 28 절에 있는 새벽별로 완결된다. 새벽별은 깊은 밤이 지나고 동이 뜨기 전 가장 어두운 시간에 나타난다.
  2. 새벽별의 원칙 안에서 그리스도인은 일찍 일어나야 한다. 왜냐하면 새벽은 주님을 만나기에 (하나님과 교통하고, 찬양하고 노래하며, 사역의 말씀과 함께 성경을 기도로 읽고, 주님께 기도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이기 때문이다 — 아 7:12, 시 5:1-3, 57:8-9, 59:16-17, 63:1-8, 90:14, 92:1-2, 108:2-3, 143:8, 출 16:21.
  3. 주님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깨어서 기다리는 이들에게 그분 자신을 새벽별로서 은밀하게 주심으로써 그들이 주님이 계시지 않았던 오랜 시간 후에 다시 오실 때 그분의 임재의 신선함을 맛볼 수 있도록 하실 것이다.
  4. 우리는 하늘에 속한 별이신 그분으로부터 살아있는 이상과 살아있는 안내를 받아야 한다 — 마 2:1-12, 민 24:17, 비교 미 5:2.
    - a. 비록 우리가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예수님께서 계신 바로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도록 살아있는 인도를 가진 즉각적이며 최신의 살아있는 별이 필요하다 — 요 5:39-40.
    - b. 만일 우리가 그러한 필수적이며 살아있는 인도를 원한다면 반드시 주님과 친밀한 교통을 가져야 한다. 우리는 반드시 그분과 하나 되어야 한다 — 고후 2:10-14.
    - c. 박사들이 집 안에서 예수님을 경배한 후,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자기 나라에 돌아갔다.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본 후에 우리는 결코 같은 길을 취하지 않고 항상 다른 길을 취할 것이다 — 마 2:12.
    - d. 성경은 하나님의 거룩한 글이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필요하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어야 한다. 주님을 찾고 주님을 따르기 위한 신약의 길은 계속적으로 그분의 감추어진 임재를 지키며 그 안에 머무는 것이다 — 고후 2:10, 요일 2:27, 비교 사 45:15, 출 33:11, 14.
  5.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따르는 이들과 그분의 전달자들은 성경에 속한 예언의 말씀을 비춤과(벧후 1:19) 일곱 배로 강화된 영에 의해(계 3:1, 4:5, 5:6) 살아있고 빛나는 별들이 된다(계 1:20, 단 12:3, 비교 유 13).
  6. 베드로후서 1장 19 절에 따르면, 만약 우리가 예언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인다면, 우리 안에서 동이 뜨고 새벽이 우리의 마음속에 떠오를 것이다.
    - a. 예언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새벽이 우리 안에서 떠오르고 하늘들로부터 무언가가 우리 위에 빛을 비출 때까지, 우리가 살아 있는 말씀에 주목하고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 b. 새벽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떠오르시고 우리 위에 빛을 비추실 때까지, 우리는 확실한 말씀 앞에 나와 우리의 전 존재를 이 말씀을 향해 열어 놓아야 한다.

## II. 사데 교회는 하나의 표징으로서, 종교 개혁 때부터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오실 때까지의 개신교를 예시한다 — 계 3:1.

- A.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네가 살아 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사실 죽어 있다.”(계 3:1). 우리는 분명히 사데 교회의 상태에 있기를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양육하며,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고, 신언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살아 있고 활동적이기를 원한다 — 요 15:16, 마 24:45, 엠 4:12, 고전 12:31-13:1, 8:1, 14:1, 3-5, 12, 31.

- B. “네가 깨어 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갈 것인데, 내가 어느 때에 너에게 갈지 네가 결코 알지 못할 것이다.”(계 3:3). 이 구절은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보물들, 곧 그분을 추구하는 보배로운 사람들을 흠치기 위해 도둑처럼 오실 분이심을 말해 준다(단 9:23, 10:11, 19).
1. 오직 생명이 성숙하고 혼이 변화된 이들만이 주님께서 훔쳐 가실 만큼 보배로운 것이다 — 계 3:3, 히 6:1 상.
  2. 우리는 주님께서 비밀스럽게 오실 때를 위해 철저히 예비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준비되고 깨어 있어야 한다 — 눅 21:36, 마 24:42-44.
- C. 그리스도는 이기는 이들이 입는 흰옷이다 — 계 3:4-5.
1. 시편 45 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두 가지 옷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2. 이 시편은 사복음서에서 계시된 것처럼 그리스도 자신 안에 있는 그분의 아름다움에 대한 온전한 그림, 곧 완전한 조망을 제시한다(시 45:1-8). 그것은 서신서에서 계시된 것처럼 그분의 왕후인 교회 안에서 계시되고(시 45:9-15), 요한계시록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왕자들로서 이기는 이들이 그분의 모든 아들들 안에서 계시된다(시 45: 16-17).
  3. 왕은 왕후의 아름다움을 갈망한다. 왕후의 아름다움은 교회를 통해 표현된 그리스도의 미덕들을 상징한다 — 시 45:10-11, 아 4:7, 9-10.
    - a. 신부의 아름다움은 교회 안에 일해 넣어지신 그리스도와 교회를 통하여 표현되신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 — 엡 1:19-23, 3:16-21, 5:25-27.
    - b. 우리의 유일한 아름다움은 우리 속에서부터 그리스도께서 비추어 나오시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부터 귀히 여기시는 것은 그분 자신의 표현이다 — 빌 1:20, 2:15-16, 비교 출 28:2.
  4. 시편 45 편에서 왕후는 두 가지 옷을 가졌다.
    - a. 첫 번째 옷은 오빌의 금이며, 금실을 짜아 넣은 것이다 — 시 45:9 하, 13 하.
      - (1) 이 옷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인 우리의 객관적인 의이신 그리스도에 상응한다 — 눅 15:22, 고전 1:30, 사 61:10.
      - (2) 왕후가 금으로 꾸며졌다는 것은 교회가 신성한 본성 안에서 나타나는 것을 상징한다 — 시 45:9 하.
      - (3) 금실로 짜아 넣은 옷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처리받으신 그리스도께서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의로운 요구를 채우는 교회의 의이시라는 것을 상징한다 — 갈 2:16, 롬 3:26.
    - b. 두 번째 옷은 수를 놓은 의복이다.
      - (1) 이 옷은 우리의 승리를 위한 우리의 주관적인 의이신 우리가 살아낸 그리스도에 상응한다 — 시 45:14 상, 계 19:8, 롬 13:11-14, 비교 살전 5:4-6.
      - (2) 우리의 주관적인 의이신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는 분이므로 항상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생활을 우리를 위하여 사신다 — 빌 3:9, 마 5:6, 20, 롬 8:4, 비교 시 23:3.
      - (3) 수놓은 옷은 교회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요구를 채우기 위한 성도들의 의(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를 입고 그들의 결혼식에서 그리스도께로 인도받게 될 것을 상징한다 — 계 19:8, 엡 5:27, 비교 창 2:22.
- D.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나오는 흰옷은 두 번째 옷을 가리키는데, 이것은 우리가 보상을 받고 왕국 안으로 들어가 주님과 함께 행하기 위하여, 즉 그분과 함께 왕으로서 다스리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다 — 딤후 2:11-12, 롬 5:17, 21.
- E. 우리는 모두 종교 안의 죽어 있는 상황을 이기고, 온갖 종류의 죽음을 정복하며, 흰옷을 입어야 한다 — 계 3:4-5 상, 민 6:6-8, 비교 레 5:2.